
모의고사 통해 SAT-II 한국어 성적 향상

posted APR 16, 2015

모의고사 통해 SAT-II 한국어 성적 향상

NAKS 최미영회장 SAT-II 한국어 문제집 편집모임 위해 방문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는 14개 지역협의회 안에 약 1,000여개의 회원학교에서 5,000명의 교사가 4만명의 동포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미국내 한국학교들의 연합체다.

지난 11일(토) 재미한국학교 협의회 17대 총회장을 맡은 최미영 회장이 SAT II 한국어 시험 문제집 편집모임을 위해 달라스를 방문했다.

김인숙 NAKS부회장, 권예순 홍보 간사, 방정웅 SAT-II 한국어 전문 위원장,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전문위원으로 활동중인 강주언 박사와 최연미 박사 등이 함께 한 간담회에서 최미영 총회장은 “한국학교에서 한국말과 언어를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학생들의 정체성을 찾아주기 위한 교육이 병행되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우리 후세들에게 미국시민으로서 잘 자랄 수 있도록 뒷바라지하는 일과 대학에 진학해서 사회에 진출할 때 한국인임을 잊지 않고 자긍심을 갖고 생활할 수 있게 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SAT II 모의고사는 2세 위한 투자

이 날의 주된 안건은 재미한국학교 협의회 중점사업인 SAT II 한국어 시험. 재미한국학교협의회는 1997년 처음으로 미국대학입학 검정시험인 SAT II 시험에 한국어가 외국어 과목으로 채택된 이후 매년 SAT-II 모의고사를 주관하고 있다.

올해로 19회를 맞은 SAT II 모의고사에 대한 평가에서 SAT II 한국어 전문위원회 방정웅 위원장은 “4월 8일 현재 1,810명의 학생이 응시해 예년보다 적은 학생들이 모의고사를 치렀다”고 밝히는 한편 “각 학교에서 꾸준히 한글교육에 힘써 7학년 이상의 응시자가 늘어났다”고 전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SAT II 모의고사 유료화에 대해 방 위원장은 “응시료를 받아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2세 교육에 대한 투자라는 차원에서 앞으로도 무료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미한국학교협의회는 지난 19년동안 SAT II 문제출제와 프린트, 녹음과 송료 등 모의고사 실시를 위한 경비가 적지않게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경비를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재정으로 충당해왔다.

SAT II 모의고사를 “2세들의 모국어 활성화 위한 가장 독특한 사업”으로 꼽은 방 위원장은 “그 동안의 시험에 나온 문제들을 정리하여 영역과 난이도에 따라 수준별 문제은행을 만들면 출제도 쉬워지고 객관성이 유지될 것”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매년 출제위원을 위촉하는 것보다는 출제위원을 3년 또는 5년 동안 위임하고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출제와 평가, 그리고 모의고사 실시 및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발전시키는 전문화되고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한국어 SAT II, 평균 767점 기록

한편 재미한국학교협의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모의고사 평균점수는 97년도에 2,447명이 응시하여 평균 649점을 기록한 이래 꾸준히 상승하여 지난 18회 시험에서는 평균 767점까지 올랐다.

응시생수는 2009년 제13회 시험에서 4,626명이 응시한 후 제14회 시험부터 소폭 하락해 작년 11월에 치러진 제18회 모의고사에서는 2,458명의 응시자 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칼리지보드(College Board)의 2014년도 SAT-II 외국어 고사 시험성적 분포를 살펴보면 총 9개의 과목 중에서 청취력 테스트가 있는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 중에 한국어의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767점을 기록했고, 응시자수는 중국어(5,682명), 스페인어(3,321명) 다음으로 많은 2,453명이 한국어를 선택했다.

[뉴스넷] 임동호 기자 info@newsnetus.com